

#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따로 있다... 기업 선호도 1위 '지게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채용 활용 현황 발표  
건설·전기·한식·환경 분야 각광  
3년간 최다 응시 '컴퓨터 활용능력'

국내 주요 기업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꼽았다. 최근 취업난에 직업상담사,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커지며 대기환경기사도 채용 기회를 높이는 자격증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정부 취업지원 사이트 워크넷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국가기술자격 우대현황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꼽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채용시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자격분야〉

순위	분야	비중
1	건설	36.29
2	전기·전자	15.5
3	기계	8.44
4	안전관리	7.34
5	음식서비스	6.29
6	환경·에너지	5.19
7	정보통신	4.75
8	재료	4.15
9	경영·회계·사무	3.5
10	기타	8.55

/한국산업인력공단

데 22만5000건이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구인 공고에 많이 활용된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로 꼽혔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였다.

특히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설분

야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전기분야의 경우 다수 자격증이 상위 순위에 포함돼 취업할 때 유리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대기환경기사도 최근 탄소중립 등 산업경향을 반영하며 2018년 24위에서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직업상담사2급,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도 최근 주목할 자격증 종목으로 나타났다. 직업상담사2급은 지난해 구인공고 건수가 2793건으로 2019년(2193건) 대비 25% 늘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도 전년 대비 각각 31%, 16%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이어 직업상담사2급, 전기기사 순이었다. 30~299명 중견기업은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로 꼽았다.

기업 수요와 달리 최근 3년(2018~2020년) 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인원은 624만9658명, 이 중 취득자는 216만5601명이었다.

이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기업은 평균 임금 월 236만4000원을 제시했다. 기술사 등급이 대체로 임금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광업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월 283만4000원으로 임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 및 외국기관(256만7000원), 건설업(254만4000원)순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실제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 평균 연봉 등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한진원 등 일부 공공기관 김치 표기 '파오차이' 안내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김치의 바른 표기를 중국식 표현인 '파오차이(泡菜)'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 음식을 통칭해 표현하는 파오차이는 발효 음식임 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 시 인제·고성·양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양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식 SNS와 온라인 매거진에서 '배추김치', '열무열갈이김치'에서 김치 부분 외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했다. 작년에 주최한 '한식만들기 공모전'에도 김치요리를 중국어로 '泡菜料理'로 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더의식' 홈페이지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게재하고 모든 종류의 김치를 전부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오표기된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국민정서와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홍남기 "공공기관 방만 경영 오해... 유가·코로나 고려해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 순이익 마이너스 질타  
홍 총리 "개선사항 면밀히 살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공공기관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 "유가변동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지표가 전부다 악화되는 등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률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분의 1 토막이 났고 순이익은 7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임직원 수는 2만4000명이 늘었고 인건비도 3조원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개선된 것도 있고 지적받은 것도 있다"며 "기관장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해서 보수를 차관급으로 낮추고 사내 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 혜택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3분의 1 토막 났다고 했는데 유가변동이나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이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같이 유가 변동성이 큰 곳이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건비 증가, 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코로나 특수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개선 사안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두고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용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과 토지보유세 등을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현재 제도화가 이뤄져서 2·4대책,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익공유형, 지적법령도 유사한 것인데 제도화됐기 때문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보유세는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산업통상자원부 'DEPA' 가입 협상 개시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파리 현지시간) DEPA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과 통상장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개국 통상장관은 이날 DEP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선언하고,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한국이 지난 9월 13일 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DEP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를 통해 전 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직무 스트레스 해소 활용 가능성 확인

치유농업 경험 소방관 스트레스 지표 ↓

치유농업을 경험한 소방관들의 뇌파에서 안정·이완 지표는 개선된 반면, 긴장 지표는 감소하는 등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맞춤형 치유농업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각종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동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

몬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농진청은 작년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올해 4~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채소와 허브 재배 텃밭 조성하기, 접시정원과 향기 주머니 만들기, 꽃 편지 쓰기 등 식물을 보고 만지고 느

낄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했다.

이번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관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안정과 이완 관련 지표는 51% 높아지고 긴장과 스트레스 지표는 10% 감소했다. 또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전보다 23%나 줄어들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한 한 소방관은 "평소에 수시 출동에 대한 긴장감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답답할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텃밭을 만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때가 있었는데 작물을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소방관은 "전국 소방관에게 치유농업의 혜택이 돌아갈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